

밝아오는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겨레말큰사전 제36호

누리판

겨레말 신년사 · 겨레말이 만난 사람 · 말에 얽힌 이야기 · 겨레말 편찬 현장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겨레의 모든 파붙이에게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거장들이 속속 우리의 곁을 떠났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이 느닷없이 터지곤 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도 그 파랑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체만한 파도를 견디고 어부들은 먼바다로 항해를 떠납니다. 우리 역시 어휘의 바다를 떠도는 어부들처럼 그 항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이후, 언어마저도 분단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측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언어적 영토는 휴전선의 이남이었고, 북측의 《조선말대사전》의 언어적 영토는 휴전선의 이북이었습니다. 남북 양측의 대표적인 사전이 이럴진대 나머지 작은 사전들이야 어떠했겠습니까. 몇 해 전, 남북작가대회를 추진했던 젊은 작가들이 “작가의 조국은 모국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모국어 분단 60년 만에 평양에서 만나 서로의 가슴을 열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 모국어의 분단이 새삼스레 아팠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후 비로소 우리 민족 전체의 언어를 대상으로 삼은 첫 번째 사전이며, 휴전선 이남의 표준어와 이북의 문화어를 통합하고 극복하는 첫 번째 사전이며, 표준어와 문화어라는 규범을 넘어서서 ‘우리 겨레가 사용하는 보통의 말’ 즉, 겨레말을 대상으로 삼은 첫 번째 사전이며, 남과 북은 물론이고 함경도와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의 어휘의 차이를 고스란히 담아내어 우리말과 글과 정신의 역사를 다양하게 수록하고 표현하는 첫 번째 사전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어 해만 지나면 모국어 분단 70년이 됩니다. 그 치욕의 세월이 이토록 길어지리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비현실적이게도 그 세월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모국어 분단의 역사에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칠 년 동안 겨레의 어휘창고를 살살이 뒤져가며 《겨레말큰사전》을 완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앞만 보고 달려온 셈입니다만 이즈음에서 한 번쯤 호흡을 가다듬고 혹시라도 소홀하게 지나온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기도 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겨레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전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과 채찍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고은



밝아오는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겨레말큰사전

제 36호

누리판

겨레말 신년사 · 겨레말의 만난 사람 · 말에 얽힌 이야기 · 겨레말 편찬 현장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이 만난 사람

###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의 산증인 장석주

지난 11월 초 중국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에서 '업무지도'를 맡고 있는 장석주 선생님이 "신문 기사로 접한 겨레말큰사전 사업회를 방문하고 싶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업회는 우리말 방송국인 흑룡강 방송국에 오랫동안 근무하며 우리말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장석주 선생님과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장석주 선생님은 인터뷰 내내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해외 동포들의 관심과 앞으로 완성될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사전 편찬의 중요성 및 조언 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장석주 선생님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35년 동안 조선어 방송국에서 근무하시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어 방송국의 산증인이 아님이 싶은데요, 오랫동안 몸담으신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은 중국에서 흑룡강성처럼 '성'에서 꾸리는 방송으로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성은 한국어로 말하면 '도' 정도 되는데요, 길림성, 요녕성에 우리 동포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처럼 '성'의 예산으로 꾸리는 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방송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1963년 2월 20일 개국한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은 후년 2013년이면 50주년이 됩니다. 방송의 말씨는 지난날 한중 수교 전까지는 거의 북한의 맞춤법과 발음을 기준으로 했지만 현재는 글은 북한 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발음은 한국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은 흑룡강성은 물론이고 길림성, 요녕성, 내몽골 지역의 우리 동포들과 우리말을 배우고자하는 중국의 기타 민족들입니다. 청취 인원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이 흑룡강성에 46만, 요녕성에 38만, 길림성의 연변에 제일 많은 120~130만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인원은 호적상에 남아있는 수치고, 실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숫자에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비롯하여 북경, 상해, 청진, 청도 등의 대도시들로 나갔고, 미국, 러시아, 호주 등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우리 민족은 대변혁기·대이동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이 개국한지 벌써 50년 가까이 되는데요, 현재의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에서 국장으로만 11년을 근무 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이 이룬 때마다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바소토시의외위

인터넷 | 보호 모드



말은 글이 간혹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소개하는 형태이며 몇 가지는 전국의 전국노래자랑 같은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행사로 운동대회를 했는데, 현재는 노인들과 어린이들 밖에 없으니 운동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아주 삭막할 정도로 동네가 조용합니다.

또한 흑룡강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웅변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방송문화 축제로 인기가 높아 우리 동포뿐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도 참여합니다. 금년에도 1등을 중국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물론 조선족이 많이 참가하지만요. 건반악기 콩쿠르, 노래 자랑, 글짓기 대회 등 해마다 조금씩 장르를 바꿔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에서 우수한 아이가 10년 후에 베를린 음악회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아이의 재능을 우리가 키웠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유공자 가족 어린이들에게 장학금 주기도 있어요.

### 흑룡강, 길림성, 내몽골에 가면 우리 '고유어'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외래어와의 교류 없이 고립된 동네에서 그대로 내려온 '우리말'이에요.

중국에 우리말 방송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 외에 우리말 방송국을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언론이나 출판사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중국에 우리말 방송은 연변 TV방송국을 비롯하여 연변 방송국 산하에 연결방송, 도문방송 등 10여 개가 있습니다. 국가방송으로는 중앙인민방송국에 우리말 방송이 한부서로 되어 있고요. 또한 국제방송이라고 있는데, 처음에는 중국의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한국과 중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방송도 있습니다. 북경의 국제방송과 중앙방송,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 연변인민방송(라디오), 연변 TV방송국, 이들이 우리말로 하는 5대 방송사입니다. 이외에도 '군'에서 꾸리는 규모가 작은 방송국은 많이 있습니다.

신문사도 많이 있는데요, 우선 흑룡강신문은 해외판, 국내판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북경, 청도, 한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직원 200여 명이 되는 우리 동포 신문사입니다. 그리고 연변에 연변일보, 길림성에 길림신문, 요녕성에 요녕일보가 있습니다.

출판사로는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요녕민족출판사가 있으며, 북경민족출판사 안에 우리글 전문 편집부가 있습니다. 잡지사도 여러 곳이 있어 문학잡지사, 전문잡지사, 교육잡지사 등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이렇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말은 방송을 통해서 표준을 잡고, 글은 신문이나 다른 출판물을 통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동포들이 사용하는 우리말에는 남북의 표기와 발음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우리말 사용에 대한 동포들의 혼란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경제와 문화적 접근이 큰 한국의 영향을 점차 많이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한국의 발음과 북한의 표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글 규범은 북쪽 기준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조선어사정위원회>가 있는데, 조선어 말과 글 규범위원회에 해당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법적으로 통과가 되어야만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바꾸는 것이 쉬운데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외래어가 물밀듯이 밀려올까봐 걱정을 막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발음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한국의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북의 말과 글을 따로 따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일상생활에서 별로 혼란은 없습니다.

방송국에 오래 근무하시면서 우리 동포들이 사는 지역 이곳저곳 여러 군데를 취재하셨을 줄 압니다. 그 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우리말 사용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방송국 일에 몸담은 35년 동안 취재를 많이 다녔습니다. 흑룡강, 길림성, 내몽골에 가면 '고유어'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외래어와의 교류 없이 고립된 동네에서 그대로 내려온 '우리말'입니다. 그런 동네를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옛날 그대로 써서 못 알아들어 다시 물어보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고유어'지요. 그런 말들을 정리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아요. 이에 비하면 한국의 경상도, 전라도 말들은 서울말과 가깝거나 외래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취재를 갈 때마다 그 지역의 촌사를 쓰려고 했습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 마을이 세워지고 첫 학교의 교장과 촌장은 누구였는지, 그 교장에서 불리는 노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예산이나 경비 문제로 결국 하지 못했죠. 우리 방송국 소임이 아니니까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게 엄청 큰 공적이고 프로젝트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흑룡강성에만 소학교가 500개였어요. 행정촌이 최하 500개가 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들이 없어서 소학교가 20여개로 줄었어요. 학생들이 없으니 어떤 학교는 학생 3명에 선생님은 13명인 학교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언어가 사라지기 전에 조사를 하면 좋을 텐데 자주 아쉬움이 남습니다.

### 중국 연변에는 신분증을 비롯하여 어떤 상점의 간판이든 반드시 한글을 위에 쓰고, 한자를 그 밑에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나 사회에서 지키려고 노력만 한다면 어디에서든 우리말은 오래오래 갈 것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동포들이 쓰는 우리말은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중국의 동포들이 사용하는 우리말의 생명력은 어떠하다고 보시는지요.

제작년에 저는 중국 연변대학 60돌 경축행사에서 졸업생 10만명 대표로 <모교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지난 60년 동안 연변대학은 전문가, 학자, 공무원 등의 졸업생 10만 명을 배출했는데 그것은 우리글과 우리말로 교육을 했기에 가능합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글을 가지고 있어 우리 후손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라디오 방문단으로 유럽에 갔을 때, 미국에는 200만 동포들이 사는데 소학교 하나도 우리말로 교육하는 학교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러시아 경우는 '김마리아', '빅토리아 박' 이런 이름조차도 성만 우리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연변에는 신분증을 비롯하여 어떤 상점의 간판이든 반드시 한글을 위에 쓰고, 중국글 한자를 그 밑에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간판에 우리글이 큰 글씨로 위에, 중국글 한자가 우리글 밑에 써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정부나 사회에서 지키려고 노력만 한다면 어디에서든 우리말은 오래오래 갈 것입니다. 외래어를 막는 중국의 민족정책도 우리말을 잘 지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차별 없이 각 민족의 언어를 모두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한국보다 외래어의 영향을 덜 받고 우리말을 더 잘 지켜나갈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말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변 등 중국에서 사용하는 우리말 중 특이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변에서 할머니를 '아매'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불리게 되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도 할머니를 '아매'라고 가르칩니다. 한국에서는 삼촌은 '아제'라고 하는데, 연변에서는 고모나 이모를 '아제'라고 합니다.

또한 해바라기를 '해자부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지역어죠. 연변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걸 아시는 분들이 5년, 10년 지나면 그분들이 다 없어지니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의 말이 남아 있으면 <겨레말큰사전>에 다 담길 것이고, 해외의 우리 동포들의 말이 또 오를 것입니다. 또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통일을 위한 큰 프로젝트이며, 이것을 이루고 통일이 된다면 거침없이 소통이 잘 되리라 봅니다. 우리말을 같이 쓰는 동포의 동질감도 더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희망하고 갈망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하나의 벽돌이 되고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겨레말큰사전

제 36호

누리판

겨레말 신년사 · 겨레말이 만난 사람 · 말에 얽힌 이야기 · 겨레말 편찬 현장 · 겨레말 소식

## ■ 말에 얽힌 이야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돌각다리

\_ 이길재 / 새어휘팀장

오빠가 덕원 농업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집안 사정으로 중퇴하였다는 것, 평강 구석의 {돌각다리} 땅때기로는 그 뒷감당이 안 되었던 모양이라는 것, 늙은 양친께서 그때도 평강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는 것... 《이호철: 문》

이호철의 소설 '문'의 한 대목이다. 여기에서 '돌각다리'는 '돌밭'이 '돌이 많은 밭'인 것처럼, '돌각다리'는 문맥상 <땅때기>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예들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이런 큰 희망을 품고 바위 우에다가 흙을 저다 부어 밭을 맨들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기도 하고 {돌각다리} 못쓸 땅은 돌을<sup>1)</sup> 쪼터다 버리고 채전을 맨들고 채소를 심기도 해야 적은 땅이라도 남겨두지 안코... 《노양근: 희망을 가집시다》<sup>2)</sup>

그러나 그 領土는 그들의 祖上들이 애급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끌려나와서 찾던 肥沃한 가나안 牧地는 아니며, {돌각다리} 沙漠에 不過한 것이다. ▼워낙 朴土인지라, 아무리 잘 다루더라도 기름진 옥토가 될 수는 없는 즉... 《동아일보》<sup>3)</sup>

하지만 {돌각다리} 밭에 그냥 씨를 뿌린다면 싹도 트지 못할 뿐더러 농부의 수고는 모두 헛수고가 되듯이 우리 나라에는 무엇보다도 사람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 《정화국: 자연은 위대한 교사》<sup>4)</sup>

그 덕택에 영애의 발바닥은 얼마 가지 않아서 구두바닥같이 굳어지고 말았다. 아무리 {돌각다리를} 밟고 다녀도 아픈 감각이 없어졌다. 《전무길: 무한애》

위의 예 '돌각다리 못쓸 땅', '돌각다리 밭', '돌각다리 사막'<sup>5)</sup>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돌각다리'는 '돌이 많은 곳, 혹은 그러한 특성을 갖는 지대'를 이르는 말이다. 기존 사전에서 '돌각다리'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 <문세영 조선어사전>(1938): 돌:각다리 [명] 「돌사닥다리」의 사투리.
- <큰사전>(1957): 돌각다리 [이] <돌사닥다리>의 사투리.
- <조선말사전>(1961): 돌각다리 [명] (방언) 돌사닥다리.
-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 돌각다리 [명] ⇒ 돌사닥다리(방언).
- <우리말큰사전>(1992): 돌:-각다리 [이] → 돌사닥다리.
- <표준국어대사전>(1999): 돌각-다리 [명] '돌사닥다리'의 잘못.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돌각다리 [명] ㄹ 돌사닥다리.

기존의 모든 사전에서 '돌각다리'는 <'돌사닥다리'의 잘못>이나 <'돌사닥다리'의 방언(혹은 사투리)>로 풀이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돌사닥다리'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돌-사닥다리 [돌: --따-] [명] 돌이나 바위가 많아 매우 험한 산길을 사닥다리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ㄴ 돌사다리.

필자는 지금까지 확인한 어떤 문헌자료에서도 '돌각다리'가 '돌이나 바위가 많아 매우 험한 산길'이라는 의미로 쓰인 예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전에서 '돌각다리'가 '돌사닥다리'의 지역어나 비규범어, 혹은 동의어로 풀이되었을까? 그 발단은 1920년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간행된 《조선어사전》(1920) '돌사닥다리'의 뜻풀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돌사닥다리 [명] 山中の巖石多き險阻なる路. (돌가닥다리).
- 돌가닥다리 [명] 「돌사닥다리」に同じ.

위의 뜻풀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선어사전》(1920)에서 '돌사닥다리'와 '돌가닥다리'를 동의어로 풀이하였다. 이러한 사전적 풀이는 후에 간행되는 사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돌각다리'가 처음으로 실린 사전은 1938년에 간행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이다. 한글 맞춤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전인 《조선어사전》(1938)에서는 《조선어사전》(1920)에서 규범어로 풀이한 '돌가닥다리'를 지역어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돌가닥다리'의 '가닥다리'를 '사닥다리'의 지역어로 인식한 결과이다. '돌각다리' 또한 《조선어사전》(1938)에서는 사투리로 풀이되어 있는데, 이는 '돌각다리'를 '돌가닥다리'의 준말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 '돌각다리' 혹은 '돌가닥다리'에 대한 풀이는 모든 사전에서 《조선어사전》(1920)의 관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돌각다리'와 마찬가지로 '돌가닥다리' 또한 '돌사닥다리'와 동의어로 풀이할 근거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웹 상에서 몇몇 '돌가닥다리'의 쓰임이 보이는데, 기존 사전의 '돌사닥다리'의 뜻풀이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교회 앞마당 {돌가닥다리} 같이 쓸모없는 땅에서 주먹만한 수박과 참외, 오이, 가지가 주렁주렁 달리고... (<http://www.bmch.co.kr>)

'돌가닥다리'나 '돌각다리'는 공교롭게도 어떤 방언사전에서도 조사된 바가 없다. 이는 현재 일반사전들이 '돌가닥다리'나 '돌각다리'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조선어사전》(1920)의 '뜻풀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반증이다. '돌가닥다리'뿐만 아니라 어쩌면 '돌사닥다리'의 뜻풀이도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것인지도 모른다.

{돌사닥다리가} 끝나고 길이 편평해져 산을 오를 만하였다. / 현의 발길은 {돌사닥다리가} 시작되는 산기슭까지가 고작이었다. 《박완서: 오만과 몽상》

갈가 십이지 안타 하며 다시 요기를 든든이 혼 뒤에 산꼭대기로 조차 내려오느니 괴구혼 {돌사닥다리} 빗탈길에 발뚧치기가 어렵고... 《김교제 번안: 비행선》

다음 호에는 '돌사닥다리'의 뜻풀이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돌각다리, 돌사닥다리'에 대한 《겨레말큰사전》의 뜻풀이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원 신문기사에는 '몰'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이는 '돌'의 오자인 것으로 보인다.

2) 1940년 3월 31일 동아일보 기사.

3) 1960년 1월 13일 동아일보 촌평 '형설수설'.

4) 2006년 3월 13일 강원일보 기사.

5) 암석사막, 돌사막.



밝아오는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겨레말큰사전 제36호

## 누리판

겨레말 신년사 · 겨레말이 만난 사람 · 말에 얽힌 이야기 · 겨레말 편찬 현장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편찬 현장

## 남북 언어 차이 조사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사업회는 지난 12월 21일 새터민 10명을 초청하여 '남북 언어 차이 조사를 위한 설문 및 심층 면담 형식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남과 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중 사전상의 뜻풀이는 같지만 실제 어감의 차이, 빈도의 차이, 사용 범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어휘들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열렸다. 특히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거주 당시 교사 및 교수, 작가, 예술단원, 아나운서 출신 등 고학력 및 전문 직업군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북한 어휘 사용 빈도와 해당 단어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답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진행된 설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야근-밤일, 초인종-부름종, 홍수-큰물, 당직-직일 등 사전적인 뜻은 비슷하나 남과 북에서 사용 빈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어휘 179항목에 대한 북녘말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남쪽의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로 드레스-나리옷, 비스킷-바삭과자, 로션-살결물 등 434항목에 대해서도 사용빈도와 쓰임새 여부 설문이 진행되었다. 특히 심층 면담에서는 응답자의 연령, 지역, 탈북 연도, 유형에 따라 조금씩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심층 면담 및 설문을 진행한 담당자는 "설문을 분석해 보니 남북에서 사용 빈도가 확연히 다른 단어들 많이 있었다. 또한 남북한 사전에서 동일한 의미로 기술되고 있으나 실제로 남한과 북한에서 다른 어감으로 사용되는 단어, 남한에서는 사람과 동물에게 두루 사용되지만 북한에서는 동물에게만 사용되는 등 사용 범위의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도 존재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그동안 남측의 각종 문헌에서 설명해 놓은 북녘말에 대한 정보의 진위와 단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겨레말큰사전

제 36호

누리판

겨레말 신년사 · 겨레말이 만난 사람 · 말에 얽힌 이야기 · 겨레말 편찬 현장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소식

### 제21차 정기 이사회 개최



지난 12월 7일 제21차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고은 이사장을 비롯해 이상규, 권재일 이사 등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1년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보고>를 시작으로 <2012년 예산 및 사업계획>과 <규정 및 지침 개정> 안건이 승인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 승인된 직원근무규정 개정으로 연가 일수, 특별 휴가 일수 등이 현실화되고, 입양 휴가 제도가 신설되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겨레말큰사전 제36호

## 누리판

겨레말 신년사 · 겨레말이 만난 사람 · 말에 얽힌 이야기 · 겨레말 편찬 현장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소식

## 제55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및 송년회 개최



제55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16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2011년 업무 현황 보고>와 <2012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외 공동회의 녹취록 작성 방향 논의, 편찬 사업 홍보 자료 내용 검토 등이 이어졌다.

회의가 끝난 후 편찬위원들과 사업회 직원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2011년 한해를 되돌

아보고, 2012년 계획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정도상 상임이사는 올 한해 고생한 직원들에게 “내년에도 직원들 모두 건강하고,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힘써 달라.”고 대표로 인사를 전하였다.

저녁 식사와 함께 미리 공모한 <겨레말 삼행시 대회> - ‘뿌리 깊은 겨레말’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사업회 전 직원들이 직접 투표한 삼행시 대회에서 박장민 선임연구원이 1등인 <겨레말 상>을 수상하였다. 2등은 사무처 노명아 대리, 3등은 박선영 연구원, 4등은 오창윤 선임연구원, 남초록 선임연구원이 5등을 차지하였다. 겨레말 삼행시 대회를 통하여 사업회 직원들의 숨은 작문 실력을 엿보는 계기가 되었다. 올 한해 동안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온 힘을 쏟아 부은 편찬위원과 사업회 직원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송년회로 2011년을 마감하였다.

### 1등 겨레말 상

겨우 이제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닙니다. 이만큼이나 왔습니다.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칙칙푹푹 힘차게 달리고 싶습니다.  
말과 글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겨레말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겨레말큰사전 제36호

누리판

겨레말 신년사 · 겨레말이 만난 사람 · 말에 얽힌 이야기 · 겨레말 편찬 현장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소식

### 사전 편찬 기관 실무자 초청 자문회의 개최

사업회는 지난 12월 27일 국어사전 편찬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전 편찬 전문가들로부터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사전 편찬 기관 실무자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도원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실장, 안상순 전 금성출판사 사전팀 팀장, 이승재 국립국어원 언어정보팀 팀장, 최혜원 국립국어원 언어정보팀 연구관, 안의정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연구교수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전 편찬 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겨레말큰사전》의 <순화어/다듬은말>의 올림말 처리 방안 및 남북의 순화정보 제시 방안, 제주 지역어의 [·] 표기 문제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순화어/다듬은말>의 올림말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안상순 전 금성출판사 사전팀장은 “순화어의 경우 남쪽에서 만들어진 순화어 상당 부분이 현실 언어가 되지 못했다.”라며 “사전이란 현실 언어를 올리는 것이지 이상화된 언어를 올리는 것이 아니다. 사전편찬자가 어떤 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안의정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연구교수는 남북의 순화정보 제시 방안과 관련하여 “뜻풀이에 <남에서, 북에서>와 같은 정보를 약물로 제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회는 이번에 제시된 사전 편찬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겨레말큰사전》의 <순화어/다듬은말>의 올림말 처리 방안과 남북의 순화정보 제시 방안 등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